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섬유소재 공급구조에

힘의 균형 바뀌고 있어

일본의 섬유시장에서는 면화, 양모, 면사, 면직물, 각종 부자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섬유소재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데, 최종제품의 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가 부진한 일본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신흥국에서는 자체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신흥국의 이러한 시장상황은 일본으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것을 뜻한다. 섬유소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공급구조에 변화가 일고 있으며, 방적이나 어페럴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젠 섬유소재를 해외로부터 값싸게 조달하던 시대는 끝났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 섬유소재를 공급하는 구조에 있어서의 힘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면사·면직물의 가격상승을 들 수 있다. 일본에 많은 면사를 수출해 온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그 예이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섬유소재를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해 왔는데, 이들 나라들은 이제 자국의 섬유제조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파키스탄의 어떤 방적회사는 정부도 면화·면사를 수출하는 것 보다 제품수출을 크게 늘리는 것이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므로 이를 더욱 권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으로의 섬유 원자재 수출이 줄어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 시장 시세를 부추기는 양상이 되었다.

한편, 중국의 압도적인 수요와 구매력도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면화·면사의 가격이 상승 하는 것은 중국의 왕성한 수요로 기인되고 있으며, “세계에서 면사가 가장 비싸게 팔리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지금까지는 수출에 주력해오다가 점차 내수(內需)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일본으로의 수출품 가격이 상승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면직물 가격상승을 들 수 있다. “현지의 제직업자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미 생지는 어페럴에서도 흥정할 여지도 없이 부르는 게 값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중국의 생산 현장에 대하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어느 섬유기계 메이커도 “앞으로 중국의 제직업은 이익이 큰 대량 주문의 생산이 아니면 주문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소량 주문품은 각국이 자급자족으로 생산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부자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부자재 도매상은 2010년 초부터 “금년은 빨리 발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주 비싼 주문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다..”고 일본의 거래선인 어패럴을 설득하고 다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복 어패럴의 반응은 상당히 둔하여 이러한 긴박한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갑자기 ‘래쿤 퍼(raccoon fur : 너구리 모피)’를 사겠다.” 또는 “조개껍질 단추를 5,000개 사겠다.”는 등의 주문이 있었는데, 해외 어패럴들은 이와 같은 상품들을 발 빠르게 확보하여 대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일찍이 수량·가격·납기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업체만이 소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일본 내에서도 생산·조달상태를 미리 미리 확보해 두지 않으면, 어패럴은 호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감을 느끼게 하였다.♣